

# 自由世界 석유수급전망

- 에너지경제연구원 -

최근, OPEC(석유수출국기구)는 3가지 油價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여 오는 2000년까지의 자유세계 석유수급전망을 발표하였다. 이 전망은 OPEC 사무국이 감시위원회 8개국의 전문가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OPEC 中長期 戰略 수립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. 3가지 시나리오는 OPEC 평균유가가 향후 2000년까지 ①명목가격인 배럴당 18달러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(低價格), ②年平均 3% 내외의 실질가격상승이 계속되는 경우(高價格), ③실질가격 18달러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(中價格)로 구성되어 있다. 각 경우에 있어 자유세계 GDP 성장률은 90년대 前半까지 3.3~3.6%, 後半에는 2.6~3.0%, 또 OECD인플레이率は 연간 4.3~4.7%로 전제되어 있다.

低價格 시나리오(명목가격 \$18/bbl 유지)의 경우, 자유세계 석유소비는 연평균 1.8%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져 OPEC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확대(2000년 59%) 될 것으로 보인다. 또 매장량 보유가 큰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회원국의 생산능력이 한계에 도달함으로써 OPEC의 쿼타배분문제는 91년을 전후하여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평가된다. 그러나 石油收入이 낮기 때문에 OPEC의 재정상태는 불만족일 수밖에 없다.

高油價 시나리오(실질가격 상승이 연평균 3.0% 내외 지속)의 경우, OPEC 石油收入은 크게 확대될 것이나 자유세계 석유소비는 담보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다. 특히 90년대 후반에 가면 수요의 정체로 OPEC 석유의 판매확대는 오로지 非OPEC의 공급감소분에 그칠 수밖에 없어 OPEC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제약을 받게 될

다. OPEC의 잉여생산능력이 크기 때문에 쿼타를 둘러싼 회원국간의 갈등은 2000년에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 더우기 소비국의 에너지절약, 석유대체노력의 강화 등이 예상될 수 있어 OPEC측은 이를 우려하고 있다.

현재로서는 中價格 시나리오(실질가격 \$18/bbl 유지)가 가장 현실성 있는 것으로 OPEC 내부에서는 잠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. 이에 의하면 자유세계 석유소비는 향후 2000년까지 연평균 1.1%(불량으로는 57.5만b/d)씩 증가하여 2000년도 OPEC 석유에 대한 수요규모는 30.2백만b/d(시장점유율 53.6%)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. 또 OPEC의 쿼타배분문제는 1994년경에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이상을 종합해 볼 때, OPEC은 油價급승보다 장기·안정적인 가격유지를 지향하고 있으며, 현재의 가장 큰 난제로 되어 있는 쿼타배분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즉 대체로 90년대 전반에 가면 손쉽게 해결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. 따라서 쿼타배분문제에 있어서 회원국 모두가 만족하지 않는 한 현재의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는 당분간 유보될 가능성이 크다. 또 실질유가 \$18/Bbl 유지가 OPEC 가격정책의 중심이 된다고 간주할 때 내년도 OPEC가 지향하는 目標油價(혹은 基準油價)는 배럴당 19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. ♣ <에너지동향>